

# 청년정착·균형발전·정치혁신...메시지 경쟁 치열

## 통합시장·교육감·보선 후보들, 일제히 사전투표 완료

민형배·이정현 “기업 찾아오고 청년 머무는 도시 만들겠다”  
장관호 ‘민주주의’·김대중 ‘교육특별시’·이정선 ‘미래인재’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통합시장과 통합교육감을 뽑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30일 마무리됐다. 후보들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광주와 전남 각지의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한 뒤 청년 정착과 균형발전, 정치혁신, 미래교육 등 자신들이 내세운 핵심 공약을 거듭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공교롭게도 나란히 대학 캠퍼스를 사전투표 장소로 선택했다. 청년과 미래세대를 향한 메시지를 거듭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 후보는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대학생 5명과 함께 투표했다. 그는 “전남광주의 대도약 출발은 바로 투표”라며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순천을 찾은 이유에 대해 청년 유출 문제 해결과 동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담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장 출마 이후 광주권과 전남 동부권·서부권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용지관

컨벤션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그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광주·전남, 기업들이 몰려와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해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정치 변화와 선거 혁명을 가져올 주제 세력이 대학생들이라고 믿는다”며 정치 혁신과 세대교체를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광주 서구 금호2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이번 선거는 단순히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전남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진보정당이 지역 정치에서 견제와 균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진보당 이종욱 후보는 목포 삼호중공업 출근길 유세를 마친 뒤 목포 용당1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이 후보는 “전남광주의 정치 수준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보와 민주주의는 호흡의 양날개가 필요하다”며 진보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무소속 김광만 후보는 강진읍사무소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그는 “공약한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 4년 뒤 시민들로부터 일 잘하는 시장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며 행정 경험과 실행력을 앞세웠다. 통합특별시장교육감 후보들의 사전투표



전남광주 공정선거감관단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광주 서구 영3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를 참관했다. 두 팀으로 나눠 오전 사전투표 준비와 개시 및 진행 상황 참관, 오후 팀은 사전투표 마감과 관의 회송용 봉투 우체국 인계과정을 참관했다. 참관위원들은 각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마감 후 통합명부시스템의 관의 선거인 투표용지 발급수 및 고부수와 집계한 회송용 봉투 수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관의 사전투표함을 개함해 회송용 봉투 수를 세어 관할 우체국에,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계 서류는 구시군선거위에 인계하는 과정을 참관했다.



전남광주 공정선거감관단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광주 서구 영3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를 참관했다. 두 팀으로 나눠 오전 사전투표 준비와 개시 및 진행 상황 참관, 오후 팀은 사전투표 마감과 관의 회송용 봉투 우체국 인계과정을 참관했다. 참관위원들은 각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마감 후 통합명부시스템의 관의 선거인 투표용지 발급수 및 고부수와 집계한 회송용 봉투 수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관의 사전투표함을 개함해 회송용 봉투 수를 세어 관할 우체국에,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계 서류는 구시군선거위에 인계하는 과정을 참관했다.

현장도 각자의 교육 철학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이어졌다.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가장 먼저 투표장을 찾은 장관호 후보는 전남 무안군 삼향읍 목포대 남악캠퍼스 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생애 첫 투표를 하는 고등학교 3학년 제자 2명과 함께 투표했다.

장 후보는 “투표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시민으로서의 첫 책임”이라며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말했다. 교실 안 교육을 넘어 시민 참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행보로 받아들여졌다.

김대중 후보도 같은 장소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쳤다. 그는 “아이들의 배움과 지역의 일자리를 잇는 대한민국 교육특별시를 향한 투표를 시작했다”며 교육과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

했다.

이정선 후보는 전남 영암군 삼호읍 출근길 인사 이후 광주 동구 계림2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 그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고 실력과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통합교육 체제 구축과 미래 인재 양성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강숙영 후보는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한 뒤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정책 중심 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도 사전투표와 현장 유세를 통해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통합특별시장 출마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 역시 지역 발

전 방향과 정치 지형 변화를 가능할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후보는 29일 광산구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광산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산업 전환, 더 나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라며 “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는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일 투표 의사를 밝히고 수완·첨단지구 일대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안 후보는 “민주당의 독선과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룰 토박이 후보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는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를 마친 뒤 “낙하산 인사 아닌 지역을 위해 바로 뛰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광산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진보당 전주연 후보는 수완동에서 사전

투표를 마친 뒤 반도체 산업 유치와 광산발전 구상을 제시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신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를 마친 뒤 “AI 시대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구본기 후보 역시 수완동에서 투표를 마친 뒤 이번 선거를 정치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시장 후보들은 청년과 균형발전, 정치혁신, 지역 발전을 전면에 내세웠고, 교육감 후보들은 미래교육과 교육격차 해소, 시민교육, 정책 경쟁을 강조했다. 광산을 보궐선거 후보들 역시 산업 전환과 지역 발전, 정치 개혁 등을 화두로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소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전남도, 동경호남향우회와 교류·협력 확대 논의

김영록 지사 “전남 국제경쟁력 강화 위해 긴밀히 협력”

전남도가 일본 내 호남 향우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9일 일본 친잔소 도쿄 호텔 연회장에서 동경호남향우회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재일 향우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대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일본 내 호남 향우사회와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남의 국제교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경

호 동경호남향우회장, 정기욱 재일전남도민회장 등 재일 향우사회 주요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본 내 호남 향우사회의 활동 현황과 교민사회의 역할을 공유하며, 전남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행사에선 김영록 지사가 재일 향우사회 발전과 전남도와의 교류 활성화에 기

여한 신경호 회장과 정기욱 회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동경호남향우회에서 도 고향 발전과 국제교류 확대에 힘쓴 김영록 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영록 지사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향우들은 전남의 소중한 자산이자 민간 외교의 든든한 기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일 향우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전남의 국제경쟁력과 글로벌 위상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일본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9일 (현지 시간) 친잔소 도쿄 호텔에서 열린 '동경호남향우회 간담회'에서 향우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알로에